

# 한국스님과 결혼한 미국인 이야기

푸른 눈, 금발의 미국인 수미 런던  
자전적 에세이 통해 불교를 말한다

“사람들은 푸른 눈과 금발을 가진 내가 어떻게 불교에 귀의하게 됐는지 궁금해 하지만, 나는 한국인이 기독교를 종교적 인식처로 삼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물질만능주의가 발달하면서부터 불교 열풍은 동양보다 서양에서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사람들은 독특한 복장, 독경과 절, 참선 수행, 복잡다단한 철학 등을 가진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서구인들에게 신기함을 느낀다.

하지만 미국인 수미 런던은 동양권의 한국인들이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인 데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저자인 수미 런던은 “2000년 처음 미국 뉴욕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자신의 옆자리에 십자가 금 목걸이를 한 젊은 여성에 신기함을 느꼈다. 그와 반대로 외국인인 자신은 염주를 차고 불교 서적을 읽고 있었다”고 책의 머리말에 밝히고 있다.

수미 런던은 “기독교는 동양적인 세계관이나 한국문화와는 전혀 다르다. 백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자아와 사회의 본질은 물론이고, 신학적 바탕, 성상, 언어도 다르다”라며 “한국인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여왔는지 궁금했다”고 말한다.

반대로 정작 수미 런던 자신이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운명이었다고 책을 통해 밝히고 있다. 수미 런던은 “내가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종교적 인식처로 삼는데 신기해 한 것처럼, 미국인인 내가 어떻게 불교에 귀의하게 됐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책에는 수미 런던이 어떻게 불자가 됐고, 불교가 수미 런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

수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몸에 익히게 됐다. 1975년 미국 뉴햄프셔 교외에 있는 작은 선 공동체에서 태어난 그는 8년 동안 그곳에서 성장했다.

그 후 윌리엄스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종교학을 부전공했으며, 이어 2001년 하버드대학 신학대학원에서 불교학 및 산스크리트어 석사학을 마쳤다.

수미 런던이 본격적으로 불교를 알게 된 것은 수미가 하버드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당시

이다. 재학 시절 수미 런던은 하버드대학 불교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미 런던이 불교에 더 폭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일미 스님과 특별한 인연 덕분이다. 하버드대학 재학 시절 ‘미국 불교’ 강좌를 신청하고 수업을 들으러 간 수미 런던은 우연히 감색 격자무늬 셔츠와 카키색 바지를 입고 머리를 삭발한 신입생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첫 눈에 그는 사랑에 빠진다.

수미와 일미 스님은 몇 년 동안 사귀고 난 후 결혼에 합의했는데, 이 과정에는 일미 스님이 가족 생활을 허용하는 종적을 옮기는 과정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수미 런던은 그렇게 일미 스님과 결혼 생활에서 1남 1녀의 예쁜 아이들을 낳게 된다. 첫째는 산스크리트어로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 받는’ 뜻을 가진 ‘프라야’로 이름을 지었으며, 둘째는 <화엄경>에 등장하는 선재동자의 이름을 따 ‘선재’라고 이름 지었다.

수미 런던의 일생은 여러모로 불교와 함께였다. 현재 수미 런던은 듀크대학 불교공동체 지도법사 및 듀럼불자가족회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미는 앞으로 재가법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는 것으로 생을 회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미와 일미 스님과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불교적 삶이 수미 런던의 인생에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는지에 대해 자세히 담겨 있다.

수미, 일미를 만나대수미 런던 지음 | 1만5000원

이은정 기자

# 구마라집이 바늘을 삼킨 까닭은?



불교철학 이야기 100  
왕혜천 외 편저  
보누스 출판사 펴냄 | 1만 2000원

대덕을 갖춘 고승의 언행과 이야기에는 불교의 진수가 담겨 있다. <불교철학이야기 100>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불교의 지혜와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책은 수천 년 불교의 역사에서 지혜의 정수가 될 만한 이야기들 한 권에 담았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돈오성불(頓悟成佛)’하며 불교가 태동한 순간부터 후대의 고승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전한 숱한 일화들이 망라돼 있다. 깨달음을 향한 불교의 산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셈이다.

책은 또 각각의 일화 뒤에 ‘불교의 지혜’와 ‘불교의 지식’을 별도로 수록해 독자들이 불교철학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돈오성불’ 편에서는 석가모니가 마왕 파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해탈을 얻고, 48일 명상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불교철학이야기 100>은 일화를 소개한 뒤 ‘불교의 지혜’에서 석가모니가 부처가 된 의미가 인간세상에서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의 지식’에서는 붓다의 사전적 의미와 불교적 의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염화미소’ 편에서는 석가모니가 영산범회 설법 중 금빛 비라밀 꽃을 보여주자 마하가섭이 조용히 웃음을 짓는 일화를 전한다. 이어지는 ‘불교의 지혜’에서는 꽃을 든 이유가

가능한 넓은 도량과 관용을 뜻함을 밝히고 있다.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방식이 선의 깨달음이라는 설명이다. ‘불교의 지식’에서는 가섭에 대한 설명과 선종의 창시와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철학이야기 100>에서 ‘불교의 지혜’는 각 이야기에 담긴 불교의 이치와 지혜를 집약해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불교의 지식’은 불교 철학사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기술해 불교의 문화적 배경과 지식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이 책은 불교 철학을 이야기로 풀어내면서도 진지함과 깊이를 잃지 않고 있다. 풍부한 문학적 감수

왕명으로 열 번의 혼인했던 구마라집  
스님들 혼인 막으려 은침 한사발 삼켜

성과 철학적 엄밀성은 다른 불교철학서들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다. 정선된 100편의 이야기들이 불교 철학에 대한 전형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세속과 동떨어진 수행과 고된 깨달음의 여정처럼 보이지만 삶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다. <불교철학이야기 100>에 담긴 이야기들도 경전이 아닌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깨달음의 요체로 제시되고 있다.

도서출판 보누스 관계자는 “이야기 속에 담긴 철리와 지혜를 터득한다면 불교 뿐만 아니라 인생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의 마음 자리를 되돌아 보는 것이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 사진의 대가, 관조 스님 작품집... ‘부처님의 손’ 발간



국립추천박물관(관장 이내옥)과 관조스님문화회는 9월 13일까지 진행되는 기획특별전 ‘부처님의 손’을 기념해 관조 스님의 작품을 담은 50페이지 분량의 작품집 <부처님의 손>을 발간했다.

관조 스님은 생전에 1980년 첫 작품집 <승가> 이후 <한줄기 빛> <사찰꽃살문> <님의 풍경> <사천왕> 등 20여권의 많은 사진작품집을 출간했다. 이번 작품집 <부처님의 손>은 부처님의 수인(手印) 사진 작품에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우리나라 대표 시인 19명의 시도 함께 실어 기존의 작품과는 차

별성을 띤다.

이번 작품집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중생사랑으로 나무신, 불보살의 자재한 손짓’이라는 진적(眞跡) 범어를 내렸으며 작품집의 제목 <부처님의 손>을 직접 친필로 썼다.

작품집에는 관조 스님의 기획특별전에 참여한 김용택, 도종환, 유안진 등 19명의 시인의 친필 시(詩)도 실렸으며 관조 스님의 행장, 불상수인(佛像手印) 해설원고 등을 실어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했다. (033)260-1537 이은은 기자

## 아름다운 신라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린다

9월 24~25일 경주엑스포서  
‘세계불교문화대제전’ 열려

신라불교문화 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세계적인 축제가 열린다. 세계불교도우의회(WFB)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9월 24~28일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간 중 전세계 불교 관련 단체 및 한국불교계가 참여하는 세계불교문화대제전을 개최해 천년 신라의 불교문화를 재조명한다.

행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과 불국사에서 >학술포럼 >불국사 명상음악 페스티벌 >불교문화에울려퍼들 등이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4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불교무용단, 타악 퍼포먼스를 비롯해 인기가수의 초청공연이 선보이며 한국 및 세계 주요 불교인사 초청 환영 만찬이 열린다.

2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경주 힐튼호텔에서 ‘범



종교적 관점에서의 생명’을 주제로 ‘2011세계불교문화포럼’이 열린다. 포럼에는 세계불교도우의회 사무총장인 팰롬 타이어리(Phallop Thaiyry)와 세계 유명 불교학자와 국내 저명 불교인사가 참여한다. 27일 불국사에서는 국내·외 유명 명상음악가를 초청해 ‘불국사 명상 음악 페스티벌’을 열고 불교 명상 음악의 우수성을 대중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은은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4	팔정도	비구 보디	고요한소리
5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6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7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슬
8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조계종출판사
9	선어사전	해민	운주사
10	들음수목 신기한 사찰 이야기	목경찬	조계종출판사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여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EASY GOLD**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 아니라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용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영일상사 홈페이지 참조 [www.yiss.co.kr](http://www.yiss.co.kr)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영일상사**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스님, 불자 연금보험 변액, VUL, 종신 보험**

1.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평생동안 세금없이 매월 ⑤백만원이상 받는 연금이 있다면!
2. 건강이상시(사고, 재해시) 무상치료 받고 보상 받는다면!
3. 여유자금 00원이 있다면 = 「안정성 + 수익성 + 유동성」 = 인플레이션 방지
4. 비과세 초스피드 00원 목돈 마련 계획 전문가

(1) 공인 재무상담 전문가  
(2) 공인 Risk 컨설팅 전문가  
(3) 토지 분석 전문가 (건국대학원 수료)  
(4) **공인 변액 자산관리 컨설팅 전문가**

**무료상담 환영**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준비』 강의 요청시  
언제라도 스님과 불자님은  
**무료로 강의** 해 드립니다.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小佛子 慧峰 합장

**상담전화**  
011-335-6389 / 02-471-2356

20년 오랜음씨  
태화불상에숙원 **갈상**

8각좌대**항복부처님** 전문염가조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항복도불도배**

있는곳: 경북 경주시 서건동 한빛길 28번 14호  
문의: 010-5595-8533  
약하는곳: 054) 773-8533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선문염송 17권>**

바로 보인  
**선문염송**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획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기서 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http://www.zenparadise.com)